

## HEADLINE NEWS

### 민원전화서비스 「311」로 통합해 24시간 운용 (휴스턴)

미국 휴스턴市는 지난 8월부터 새로운 민원전화 서비스(311 Houston Service Helpline)를 시작했다. 市는 시민들이 빠르고 쉽게 市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전화번호를 「311」로 통합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통합 전화번호를 통해 교통범칙금관련 문의, 하수구나 도로포장 불량 신고 등 각종 신고 및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311」 전화 서비스는 경찰 관할로, 경범죄 등 비교적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건 신고를 처리하는 데 이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市의 행정관련 서비스와 통합 운영되게 되었다. 이로써, 안전, 생명 등에 관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911」, 市에서 발생하는 나머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311」로 이원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911」의 부담도 경감되었다.

([www.ci.houston.tx.us/citygovt/mayor/press/082701.htm](http://www.ci.houston.tx.us/citygovt/mayor/press/082701.htm))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공원 벤치에서 인터넷 접속 가능 (런던)
- ② 중앙 및 州정부와 공동으로 수변공간 개발 추진 (토론토)
- ③ 호수·연못 등 水上면적 2배로 확대 추진 (북경)
- ④ 「가로훼손보증금」 제도 도입 (뉴질랜드 : 오클랜드)
- ⑤ 학교를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시애틀)

### 도시환경

- ⑥ 저공해 도심유입차량 혼잡통행료 할인 추진 (동경)
- ⑦ 생활폐기물 저감·재활용 7대 대책 추진 (홍콩)

### 도시교통

- ⑧ “독립된 공공기관이 철도 안전성 점검해야” (런던)
- ⑨ 야간 주·정차차량에 ‘야광스티커’ 부착해 추돌사고 예방 (일본 : 카나가와縣)

### 행.재정

- ⑩ 정부회의 발언시간 5분 이내로 제한 (중국 : 遼寧省)
- ⑪ NGO자료 포함시킨 도시통계책자와 CD-ROM 제작 (이스탄불)

### 사회복지

- ⑫ 시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야간강좌 개설 (파리)
- ⑬ 시립도서관 도서수요조사 실시 (뉴질랜드 : 웰링턴)

### ① 공원 벤치에서 인터넷 접속 가능 (런던)

영국 런던 에드먼즈베리 자치위원회와 마이크로소프트社は 공동으로 아베이 성당의 공원 벤치에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최근 이를 일반에 공개했다. 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벤치 아랫부분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소켓을 설치, 노트북 컴퓨터를 휴대한 공원 이용객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인터넷 공중시설이 쉽게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당국은 견고하게 설치해서 쉽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매년 백만여 명이 아베이 성당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밝히고 있다.

([www.govtech.net/news/news.phtml?n=2001.08.07](http://www.govtech.net/news/news.phtml?n=2001.08.07))

### ② 중앙 및 州정부와 공동으로 수변공간 개발 추진 (토론토)

캐나다 최대도시인 토론토市는 중앙정부와 州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46km에 달하는 수변공간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앙정부, 온타리오州 그리고 토론토市는 최근 토론토의 수변공간 개발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 하고, 먼저 ‘토론토 수변공간회복공사(Toronto Waterfront Revitalization Corporation)’를 공동으로 설립, 수변공간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도록 했다.

(본지 제2호 「수변공간 회복을 위한 Task Force 구성 (토론토)」 참조)

기반시설 정비 및 도시개발에 소요되는 약 1조원에 달하는 개발비용도 중앙정부, 州정부 그리고 토론토市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市는 ‘수변공간 회복계획(Waterfront Revitalization Plan)’을 통해 관광 진흥과 공원 조성,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추진중인데, 그 1단계로 3,000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구축, 대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www.city.toronto.on.ca/waterfront/index.htm](http://www.city.toronto.on.ca/waterfront/index.htm))

### ③ 호수·연못 등 水上면적 2배로 확대 추진 (북경)

중국 북경市는 시내에 산재한 호수·연못 등 水上면적을 현재 5,500ha에서 2008년 13,000ha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市는 특히, 올림픽촌에는 昆明湖(水上면적 194ha)보다 큰 200ha 규모의 인공호수를 만들 계획이다. 市의 도시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26개인 호수를 43개로 늘리고 清河, 通惠河, 凉水 등의 하천과 주요 지류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市는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옮기는 「南水北調 프로젝트」가 2007년 완성되면 市의 수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人民日報, 9. 6)

### ④ 「가로훼손보증금」 제도 도입 (뉴질랜드 : 오클랜드)

뉴질랜드 오클랜드市 의회는, 건설공사 중에 교차로·보도·공공장소 또는 공공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주 또는 개발업체가 「가로훼손보증금(Street Damage Deposits)」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市의회가 추진중인 조례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주 또는 개발업체가 가로훼손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市가 직접 「가로훼손보증금」을 사용해 훼손된 공공시설물 등을 보수하게 된다. 市는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훼손된 도로·교차로·공공시설물 등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다음 그 차액을 환불해주게 된다.

([www.akcity.govt.nz/news/public\\_notices/previous\\_issues/200109/02/n2.asp](http://www.akcity.govt.nz/news/public_notices/previous_issues/200109/02/n2.asp))

### 5 학교를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시애틀)

미국 시애틀市는 최근 지역내 학교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Community Nights in Schools’로 불리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방과 후 비어 있는 학교 교실과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회의나 모임장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주민들 또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원해서 돕는 상부상조형 프로그램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市는 학교 섭외와 시범 운영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2002년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2003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내 12개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www.cityofseattle.net/don/news/2001/september2001\\_part2.pdf](http://www.cityofseattle.net/don/news/2001/september2001_part2.pdf))

### 6 저공해 도심유입차량 혼잡통행료 할인 추진 (동경)

도심부에 진입하는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Road Pricing’ 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東京都의 자문기관인 ‘Road Pricing 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저공해차를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문위원회는 할인 대상의 저공해차를 메탄올차, 전기자동차, 천연자동차, 전지연료자동차, 액화석유가스자동차 등으로 하고, 차종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최종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 자문위원회는 2003년 이후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주민이나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본지 제21호 「‘도심유입차량 혼잡통행료 부과’ 설문조사 실시 (동경)」, 제14호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후보지역 제시 (동경)」 참조)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최종보고서에는 ‘Road Pricing’ 제도가 환경 개선 및 교통정체 완화에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오후 7시에 4개의 대상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차량 번호를 근거로 요금 청구서를 송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나 이륜차 등 5개 차종은 통행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6. 28)

### 7 생활폐기물 저감·재활용 7대 대책 추진 (홍콩)

홍콩은 1998년부터 착수한 폐기물저감계획의 추진 결과, 재활용비율은 1998년 32%에서 2000년 34%로 증가했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쓰레기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 '생활폐기물 저감·분리·재활용 확대를 위한 7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① 2004년까지 투엔문 지역에 20ha 규모의 재활용 산업단지 조성, ② 지역사회단위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프로그램 운용을 위해 환경보전 기금으로 1억 달러 추가 조성, ③ 공공장소·학교·주거단지 등에 8,000개의 분리수거대 추가 공급, ④ 재활용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핫라인 구축, ⑤ 시민교육 및 지역공동체 활동 강화, ⑥ 폐기물 저감방법에 대한 사례 발굴 및 가이드라인 작성, ⑦ 생산자 책임수거 방식 강화 등이다.

([www.info.gov.hk/gia/general/200109/11/0911188.htm](http://www.info.gov.hk/gia/general/200109/11/0911188.htm))

### 8 “독립된 공공기관이 철도 안전성 점검해야” (런던)

현재 런던에서는 영국 철도네트워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감시체계 (Safety Watchdog)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교통 전문가는 현재 민간 안전담당조직의 역할을 박탈하고, 독립된 제3의 공공기관이 안전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조사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Rail Track 등의 민간기관이 British Rail과 같은 국·공영 철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러한 유형의 민영화가 철도산업의 기술저하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더 나아가 현재 철도부문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METRO, 9. 21)

### 9 야간 주·정차차량에 ‘야광스티커’ 부착해 추돌사고 예방 (일본 : 카나가와縣)

일본 카나가와(神奈川)현 경찰당국은 승용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야간에 노상주차한 트럭 등과 추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5월 ‘야광스티커’를 트럭 등의 뒷면에 부착할 것을 관련업체에 요청했다. 경찰당국은 또한 차량의 후미 비상등보다 약 5배 가량 밝고, 「추돌 주의」라고 적힌 스티커를 자석을 이용해 부착할 수 있는 시제품도 제작했다. 시제품은 황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인 것과 흰 바탕에 빨간색 글자인 것의 두 종류로 제작되었다. 또한 이 시제품은 차량에 비치하기 편리하고, 차량 범퍼 등에 쉽게 붙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야간 주·정차차량 추돌사고는 대개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고, 트럭이나 트레일러 등의 화물차량과 추돌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경찰당국은 이 ‘야광스티커’를 부착하면 전조등의 불빛을 잘 반사시키므로, 이러한 형태의 추돌사고를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사히신문, 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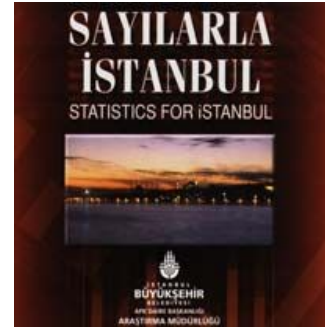
### 9 정부회의 발언시간 5분 이내로 제한 (중국 : 遼寧省)

중국 遼寧省은 省정부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할 목적으로 새로운 회의 및 보고관련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市·省정부의 활동 보고서는 6,000자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보고시간은 20분 이내, 회의에서의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각각 제한했다. 또한 회의시간의 절감을 위해 참석 간부의 소개를 생략하고, 시작과 마지막 인사는 1분 이내로 제한했다.

(人民日報, 9. 10)

## NGO자료 포함시킨 도시통계책자와 CD-ROM 제작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시는 「이스탄불의 통계」라는 도시정보관련 통계책자와 CD-ROM(사진 참조)을 제작했다. ‘이스탄불 도시연구센터’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관광, 건강, 스포츠, 경제 등 도시 전 분야에 걸쳐 관련정보를 주제별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시 공식자료뿐만 아니라 NGO의 자료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표와 그래프를 많이 삽입,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시는 대규모 국제정보기술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IT산업 육성 및 시장의 IT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ww.ibb.gov.tr/ibbeng/news/2001/localnews/09/06092001\\_01.htm](http://www.ibb.gov.tr/ibbeng/news/2001/localnews/09/06092001_01.htm))

## 시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야간강좌 개설 (파리)

프랑스 파리시 교육당국은 18세 이상 시민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야간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강좌 종류로는 수리·문자·문법 등의 일반 강좌,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불어 강좌와 독일어·영어·러시아어·일본어·중국어 등의 외국어 강좌 그리고 컴퓨터·예술·산업기술분야 강좌 등이 있다. 현재 총 156개 강좌가 진행중이며, 수강료는 강좌에 따라 170~1,400프랑 정도 된다. 강의는 주로 저녁 6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강의형태는 연간 강좌, 3개월 단위의 학기별 강좌, 그리고 15·30·60시간의 세션별 강좌 등 3가지가 있다. 시는 매년 강의교재도 발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PDF 파일로 다운 받거나 구청에서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총 800명의 강사와 27,000명의 시민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ww.paris-france.org/parisweb/fr/paris/etudier/cma/](http://www.paris-france.org/parisweb/fr/paris/etudier/cma/))

### 시립도서관 도서수요조사 실시 (뉴질랜드 : 웰링턴)

뉴질랜드 웰링턴 시립도서관은 책을 빌려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도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市 산하 및 이동도서관에서 실시할 이 조사는 지역 주민들이 해당지역 도서관에서 가장 읽고 싶은 도서와 보유하고 있는 도서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사는 각 산하 도서관별로 약 600명씩 전체 7,000명의 주민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함으로써 실시될 예정이다.

이 조사 결과는 각 지역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 중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도서관에게 보내주거나, 향후 새로운 도서 구입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조사 결과는 각 산하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장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wcc.govt.nz/news/press/2001/nr000599.htm](http://www.wcc.govt.nz/news/press/2001/nr000599.htm))